

도노라 사건[Donora]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Donora는 마제형 제철공장, 유산(硫酸)공장, 아연(亞鉛)제조공장 등이 존재하는 공장가(工場街)였다. 1948년 10월에 기압(氣壓)의 변화에 의한 무풍지대(無風地帶) 기온(氣溫)의 역전층을 형성(形成)하고 안개가 발생하여 공장에서 발생(發生)한 매연이 약 5일간 도라노의 상공(上空)에 정체(停滯)했다. 그 사이 14,000명의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호흡(呼吸)곤란, 기침, 흉부압박감, 눈코인두의 자극감(刺戟感), 두통(頭痛), 구토(嘔吐) 등을 일으켜 20명의 사망자(死亡者)가 났다. 건강상 피해가 있었던 사람은 고령자층이 많고 사망자(死亡者)의 대부분(大部分)은 심질환(心疾患)이나 호흡기질환(呼吸器疾患)에 걸린 사람들이었다. 사건발생후에 의사나 화학자들에 의한 조사단(調査團)이 결성(結成)되어 여러면으로 검토한 결과 아유산(亞硫酸)가스나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에 의한 대기오염(大氣汚染)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現象)이라고 밝혔다.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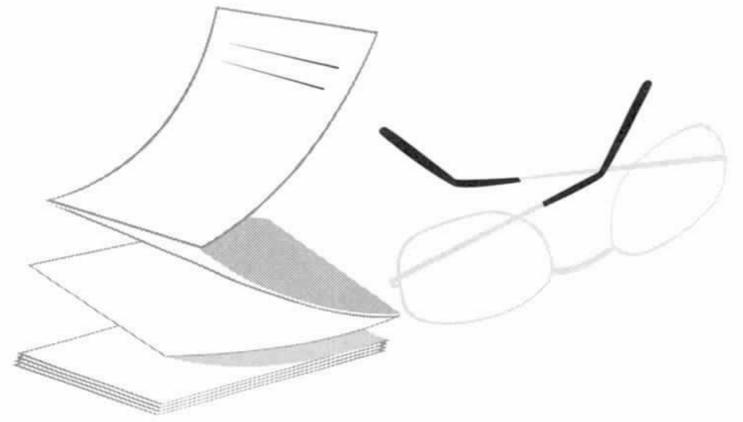
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 혹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도시화는 19세기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지구 인구의 급증과 함께 세계적 규모로 진행하여, 인구 수백만을 넘는 거대도시가 나타났으며, 인구 수천만 내지는 1억의 도시지대 혹은 다핵적 광역도시의 출현도 예측되고 있다. 도시에 부가 집중되어 고도의 문화와 거대 건조물을 과시한 반면, 빈곤도 집중되어 불건강, 불안정한 과밀지역이 되고 슬럼, 폭동, 강도, 마약, 비행 등의 도시병리현상을 야기시킨다. 또한 지역 연대성의 감소, 오락시설의 증가, 인구의 증가와 이동에 의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범죄 발생의 기초 조건을 조장한다.

디스포저(Disposer)

싱크대에 붙어 있는 주방오물 분쇄기로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기 모터로 잘게 갈아 생활하수와 함께 하천에 그대로 흘려 보내도록 하는 장치이다. 부엌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일부 부유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며, 물에 떠 다니는 물질과 질소, 인 등의 물질을 만들어내 부영양화를 가져와 물을 오염시킨다. 또한 생활하수의 31%만이 하수처리과정을 거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든 생활하수는 지하수마저 오염시킨다.

디엘드린[dieltrin]

드린계 농약의 일종으로서 유기염소계의 살충제. 엘드린보다 속효도(速効度)가 작음.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하므로 수전(水田)에서의 사용은 제한해야 함. 유제(乳濟), 수화제(水和濟), 분제(粉濟)로 하여 사용함. 도성은 마우스에 대하여 경구로 이 38mg/kg, 경피(經皮), 토끼로 약 150mg/kg임. 잉어에 대한 48시간 은 0.1~0.01ppm임. 양어장이나 하천부근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딥 에콜로지

딥 에콜로지(Deep Ecology)는 노르웨이 철학자 Arne Naess의 조어(1972년). 에콜로지 운동의 한 부류다. 현대 환경문제는 기술적 대응을 넘어선 것이라 전제하고, 수많은 사회제도(정치·경제·문화의 양상)나 개인의 세계관, 가치관 등 깊은 수준의 변혁이 불가결하다는 기본 인식을 가진다. 생명평등주의, 전체론적 세계관, 공생개념의 바탕을 둔 이 운동은 서구 유럽 및 미국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라듐

우라늄의 붕괴로 인해서 생성되는 원소로서 강한 방사능을 가지며 반감기는 1600년이나 된다. 은백색의 금속으로 알칼리토류 금속 중에서 화학적 성질이 가장 맹렬하다. 공기 중에서는 이내 산화하여 표면은 검게 되고 물을 맹렬히 분리하여 수소를 방출한다. 의료나 발광 도료 등에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인공방사성 핵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라이프사이클

하나의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 보급되고 포화상태가 되면서 대체품인 신제품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소멸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대는 소비재외에 생산재를 포함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개량을 이룩한 신제품의 등장이 빨라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점점 단축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워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1년 전후로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는 상품이 많다(전생애평가 참조)

레드 데이터 북

국제자연보호연합의 종 보호위원회(IUCN/SSC : Species Survival Commission)가 세계자연보호기금, 유엔 환경계획(UNEP) 등의 협력을 받아 멸종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종이나 야류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출판하고 있는 책. 이제까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무척추동물·식물의 각 편이 발간되었으며, 동물 기재 종은 3천1백7종(1986년)을 넘는다. 책 이름의 '레드'란 멸종 위험성이 있는 종을 나타내는 빨강색에서 유래한 것이다.